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세종이 될 수도 있었던 박근혜?

어디 감히 세종대왕에 비교하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지만 모든 정치 지도자의 마음 속에는 세종의 거대한 존재가 어른거릴 것이다. 개혁 군주 정조를 떠올리게 하는 대통령, 탕평의 대가였던 영조를 떠올리게 하는 대통령도 있었지만, 세종에 비교되는 대통령은 없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일지도 모른다.

역사상 찬란한 시대가 많지만 그 중 세종 시대는 너무도 감탄스럽다. 한 가지도 잘 하기 힘든데 어떻게 국정 of 모든 부문에서 그리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법제,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교육, 외교, 국방 등 어느 하나 빠진 데가 없다. 훈민정음 창제가 아니더라도 놀랍다.

그저서 공금해진다. 세종은 어떻게 세종이 될 수 있었을까? 세종 시대에는 어떻게 그리 많은 인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까? 자국의 문자를 창조하겠다는, 상상 불가할 정도의 발상을 했을 뿐 아니라 실천까지 해 낸 세종의 머리는 도대체 얼마나 탁월했던 걸까? 그의 의지는 도대체 얼마나 강력했던 걸까?

세종은 왕업에 대한 이해가 워낙 각별

했던 걸까? 군주 수업을 워낙 잘 받았던 덕분이었을까? 왕위에 오른 후에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왕'으로서 집현전을 통해 탁월한 공부생대계를 만들었던 덕분이었을까?

혹자는 장기집권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종보다 더 오래 집권했던 선조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혹은 부왕 태종의 서술 퍼런 왕권 확립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왕권이 유능한 왕을 만드는 충분조건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마치 세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군인 것처럼 배우지만 결코 그랬을 리가 없다. 세종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을 것이고 장점과 강점뿐만 아니라 결점과 약점,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이다.

누구도 세종대왕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지 않지만 그 유사점은 있다. 첫째, 쿠데타 세력의 후예라는 점이다. 조선 창건은 아무리 고려라는 썩고 고루해진 거악을 교체했다는 '역성혁명'이라고 명명하더라도 엄연히 군부 세력에 의한 쿠데타다. 쿠데타는 악이거만 한가? 그렇지 않다. 하물며 맹자조차도 무능한 왕을 교

체하는 역성 혁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쿠데타 세력의 후예라 해서 세종의 업적을 폄하하는 역사는 없다.

둘째, '트라우마'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은 과연 트라우마가 없었을까? 세종은 조선 창건 후 불과 26년 만에 왕위에 올랐다. 할아버지 태조의 역성혁명에 대한 트라우마, 더욱이나 아버지 방원의 피 철철 흘렀던 왕권 쟁탈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었을까? 게다가 세종은 두 형을 제치고 후계자가 되었으니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전혀 없었을까?

하지만 유사점은 딱 여기까지뿐이다. 왕이 된 후, 대통령이 된 후, 세종과 박근혜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바로 국정에서다. 세종은 국정의 직분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뛰어넘었다. 세종의 심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으나, 역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대사처럼 세종은 "저는 아바마마의 조선과 다른 조선을 만들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성장을 채찍질했는지 모

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성장의 과정을 놓쳐 버렸다. 세상의 기대와 우리가 어땠했든, 나는 박근혜가 이 시대의 세종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자신이 믿고 넘어서야 할 과거가 있고, 뛰어넘어야 할 트라우마가 있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중에 내세운 관점은 국정 어젠다가 있었으며, 왕권은 아니더라도 강력한 지지 세력과 주류 권력 대부분의 지원을 받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니었다. 그 성장의 한계는 머리의 문제인가, 가슴의 문제인가?

불행히도 성장을 멈추고 자꾸 작아지는 이 시대 대통령을 본다. 대통령 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를 상상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권력에 집착하는 인간을 볼 뿐이다. 그러더니 결국 '사초 세타'에 버금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수준에까지 떨어져 버렸다. 한 인간의 멈춰 버린 성장은 얼마나 위험한가? 한 인간의 끝없는 성장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종교칼럼

영성으로 만나는 종교인 모임



김법성 광주원음방송사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취미와 성향도 다릅니다. 특히 종교적 전문인들이 서로 화합하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 성직자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문화제를 하며 뜻을 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남종교인영성문화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도 3년전에 광주에 정착하면서 이 모임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모임은 2011년 '묵방도담'(默芳道談)이라는 소박한 모임에서부터 시작됐

습니다. 몇몇 뜻있는 분들이 변산 목방산 아래 천도교 일포선도사님이 운영하는 들국화 펜션에 모여 영성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서로의 도담을 나누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바는 달라도 근본적 입장에서 뜻을 통하고 마음을 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로의 신앙이 다르지만 이웃 종교를 직접 방문해 몸으로 체험하고 이해하는 '묵방도담'이 5회를 넘기면서 좀더 확대해 '호남종교인영성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에는 보성에 있는 천봉산 대원사에서 1회 문화제를 가졌고 2014년에는 원불교 광주교당에서 제2회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천도교, 개신교, 불교, 가톨릭, 원불교 5개 종단 성직자들이 진행을 하고 신자들과 더불어 참여하는 문화제가 성대하게 진행되어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니다. 물론 대각교절이나 성탄절에 이웃종교 성직자들을 초청해 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KCRP 등 종교 수장들이 함께하는 모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두달에 한번씩 이웃 종교 성직자들이 식사도 하고 이웃 종단을 방문하며 1년에 한차례씩 문화제를 시행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곳 광주는 영성이라는 단어로 그 뜻을 같이 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성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영성의 사전적 의미가 궁극적인 것, 비 물질적 실체, 자신의 존재에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 등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교와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인 성품의 자리나 기독교의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영성이나 단어는 다를 지언정 그 의미는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실체가 같다면 내가 신앙하는 종교와 이웃종교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토끼도 살고 호랑이도 살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신앙하며 궁극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토끼도 종교를 믿으며 절대 자리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 팔각뿔이 있습니다. 면은 다를지언정 모두 정

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점인 뿔에서 보면 사방 팔방이 모두 하나의 덩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성은 궁극적 자리이기 때문에 티끌한점 머물 수 없는 맑고 밝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분별(分別)과 주착(住着)이 없는 것이며 언어와 제도가 다를지라도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심이 일어나 다르다고 인식되어 질 때 깊은 신앙과 성찰의 수행을 통해 도달 해야 하는 지선의 자리인 것입니다.

호남종교인영성문화회 금년 행사는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고 성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초기 교단의 모습과 성자들의 행적을 찾아 근본 마음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말과 글로 단정된 영성의 문제를 몸으로 체험하고 자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이웃처럼 함께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고

편식없는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이재준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아이들은 생후 6~7개월 정도 되면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강한 공포반응을 보입니다. 이를 흔히 '낯가림'이라 하고, 심리학에서는 일종의 네오포비아(neophobia)라고 합니다. 네오포비아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심리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네오포비아 현상은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공포증과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를 음식 네오포비아(food neophobia)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증상은 만 2세에서 5세까지 가장 심하다가 초기 청소년 시기에 차츰 없어진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특정 음식의 맛, 냄새, 감촉, 모양 등에 예민하게 반응을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창조'라는 아동발달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상황이나 사람을 이들이 모르는 쓴맛을 강하게 느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의 표정에서 얻어 내는데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불안한 상황을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에게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기호가 생기는 것은 자아형성이 시작되는 시기라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기호를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시기에 다양한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유아의 식품기호가 중요시되는 것은 이것을 방지해 두면 후에 편식으로 고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처음 싫어하던 음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먹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 다양한 음식을 접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도 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혀에는 약 1만 여개의 성인에 비해 3배나 많은 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인간의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채소와 같은 쓴맛을 내는 음식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맛을 느끼는 감각이 발달해 작은 맛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채소의 경우 어른들이 모르는 쓴맛을 강하게 느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기호는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시도해보려고 해도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먹게 하거나 아이가 낯선 채소에 극도로 예민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채소에 대해 경계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단번에 혹은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적은 양으로 아이에게 서서히 새로운 채소를 자주 노출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채소를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부모님이 먼저 채소를 비롯한 새로운 음식에 대해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채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낯설지 않도록 조리법을 바꾸어 색깔 별로 예쁘게 꾸미거나, 갈아서 식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음식을 준비할 때 아이가 함께 참여하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즉 요리놀이를 통하여 스스로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넷째, 좋아하는 음식 안에 같이 조리하여 천천히 음식 맛에 길들여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억지로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강요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편식 습관 못지않게 스트레스는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건강에 취약한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학 의학센터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의 20%가 편식을 하고 있으며 편식이 심할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편식은 체중저하나 영양불균형뿐 아니라 음식 섭취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체 발달의 저하, 정신적 위축, 우울증, 주의력결핍집착(ADHD)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이미 형성된 식습관을 바꾸려면 2배 이상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임상영양학회지(2003)에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최소한 8번을 노출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편식 없는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건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지역사회, 정부가 유기적으로 서로 공조해 프로그램개발, 지원 및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社說

통합연구원 갈등 해법은 허 원장 자진사퇴다

통합 광주전남연구원 초대 원장 임명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꼬여만 가는 사태 수습은 이제 허 원장의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윤정현 광주시장의 부정적인 견해 표명에 이어 시·도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허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내년 연구원 예산을 삭감하고 강도 높은 사무행정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을 앞둔 연구원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초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도 감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허 원장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의 원천은 '자질론'이다. 청문회에서 22개인 전남의 기초단체 수치를 명확히 답변하지 못해 지역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 터진 것이 그 단적인 예다. 행정부 장관 시절 공무원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에 대한 애정 결핍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꼽힌다. 해양수산부 장관 당시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 견해를 낸 국무위원 7명 중 유일하게 특검 수용 의견을 냈다가, 겸직 포스코 사외이사 유지를 위해 광주과기원장을 1년 5개월 만에 그만 둔 것이 그것이다. 게다가 허 원장과 광주일고 동문인 김수삼 이사장은 인사회 의결이 아닌 강박으로 임명을 강행해 절차의 부적절 등 시비를 부추겼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명 자료를 내면 서까지 허 원장 편을 들며 임명을 강행해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는 동교동계 등 정치권의 비호설마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허 원장은 다소 억울해 할 수도 있겠지만 해법은 결국 그의 손에 달려 있다. 바티 때까지 버텨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진사퇴 등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울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문예회관 혁신

광주시 공연예술의 핵심 공간인 광주주문예회관 혁신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관장제 도입, 전형위원회를 통한 예술감독 임용, 공정하고 강도 높은 예술단원 평가 제도 등이 그 주요 골자다.

지난 7월 광주문예회관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광주시는 현재 산하 광주시립예술단체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방에서 가장 많은 7개의 시립예술단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를 관장하는 광주주문예회관의 수장이 현직 4급 공무원인 데다 불투명한 예술감독 선임, 형식적인 단원 평가시스템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개방형 관장제는 이번 혁신안에서 도입 쪽으로 성지를 순례하고 성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초기 교단의 모습과 성자들의 행적을 찾아 근본 마음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말과 글로 단정된 영성의 문제를 몸으로 체험하고 자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만 개방형 관장제가 성공하려면 인사권과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해 '무늬만 관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내부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전형위원회 구성 역시 중요한 혁신 요소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위촉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립예술단들의 체질 개선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현재 변별성이 거의 없는 기존의 평가 방법 대신 상대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평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광주시의 실현 의지다. 아무리 훌륭한 혁신안이 있다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동안 광주주문예회관의 개혁안이 수차례 제시됐지만 매년 흐지부지됐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혁신안이 최종 확정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 드라이브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無等鼓

예부터 사람들은 귀뚜라미를 곁에 두고 즐겼다. 중국 당나라 때 시작됐다는 귀뚜라미 겨루기는 투우·투견·투계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귀뚜라미 중에 싸움을 잘하는 놈들에게는 관우니 장비니 하는 명칭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튼실한 귀뚜라미를 기르려고 주인들은 옷통을 벗고 모기에 물린 후 그렇게 포식한 모기를 잡아 귀뚜라미에게 먹였다. 보통 귀뚜라미 머리를 살살 끊어 화를 내게 한 뒤 싸움을 붙이기도 했

다. 남송 시절 간신으로 이름 난 '가사도'라는 재상은 호화 별장에서 귀뚜라미 싸움판을 벌인 뒤 이를 보고 즐겼다고 한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정도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한다. 일반인들에게는 '귀뚜라미'를 들리는 소리가 시인들에게는 다르게 들리는 모양이다. 동요 '귀뚜라미 우는 밤'을 지은 김영일은 '또로 또로 또로 또로로'로 표현했고 시인 나희덕의 귀에는 '뚜르르'로 들렸다.

"높은 가치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작은 노래가 아니다 /~ /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나희덕은 화려한 매미 소리와 초라한 귀뚜라미 소리를 대비시켜 지금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귀뚜라미를 키운 그룹은 우울증 지수가 낮아진 데다 인지 기능과 정신적 삶의 질 지수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곤충 학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보, 아바님 덕에 귀뚜라미 한 마리 사 드려야겠어요"라는 광고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귀뚜라미 울음소리

해 준 것이 없다/ 언제 한번 귀뚜라미를 초대 하여/ 발 뺀고 늑개 하

고/ 귀뚜라미를 찬미한 시인들의 시를/ 읽어 주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귀뚜라미를 키운 그룹은 우울증 지수가 낮아진 데다 인지 기능과 정신적 삶의 질 지수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곤충 학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보, 아바님 덕에 귀뚜라미 한 마리 사 드려야겠어요"라는 광고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